

신증후군으로 발현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환자에서 발견된 칼시노이드종양 1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한규, 이영모, 강윤세, 최대은, 이상주, 나기량, 이강욱, 신영태

40세 이상의 환자에서 신증후군의 발생은 임파종, 백혈병과 폐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등의 고형암과 종종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병리소견상 막성 신병증, 미세변화성 신증후군,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그리고 amyloidosis 등이 있고, 이중 막성 신병증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의 경우 임파종외에 고형암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만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신증후군으로 발현하여 시행한 신조직검사상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무증상의 칼시노이드종양이 병발된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66세 여자로 15일간 10kg 가량의 체중증가와 전신의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입원시 혈압 110/70mmHg, 심박수 78/분, 호흡수 20/분, 체온 36.8℃, 체중 71kg 이었다. 당뇨병, 고혈압 및 폐결핵의 기왕력은 없었고 약물의 복용력도 없었다. 혈액화학검사상 총단백질 3.7g/L, 알부민 1.5g/L, 트리글리세라이드 363mg/dL, 총콜레스테롤 512mg/dL, BUN 22.4mg/dL 및 creatinine 0.8mg/dL이었다. 소변검사상 요비중 1.020, pH 6.0, 단백(3+), 잠혈(+) 및 RBC 1-2/HPF, WBC 0-1/HPF이었다. 24시간 소변 검사상 Ccr 40mL/min, 총단백 2.6gm/d이었다. 혈청학적 검사상 ASO 37IU/mL, CRP 0.22 mg/mL, IgG 310mg/dL, IgA 243mg/dL, IgM 239mg/dL, C3 108mg/dL, C4 41.7mg/dL, FANA(-), Anti DNA(-), ANCA(-)이고 Anti HBs(-), HBsAg(-), Anti HCV(-), Anti HIV(-), VDRL(-)이었다. 신조직검사상 12개의 사구체중 1개의 사구체에서 분절성 경화가 확인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이차성 신증후군에 대한 검사 중 암표식자검사수치는 모두 정상범위였으며 흉부사진 및 신체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었다. 대장내시경상 특이소견은 없었지만, 위내시경상 십이지장 구부의 전벽에 1cm 크기의 Yamada (III) 용종이 확인되어 점막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상 칼시노이드 종양이 확인 되었다. 칼시노이드 종양에 대한 전이여부를 관찰하기위한 복부CT상 전이소견은 없었다. Prednisone 1mg/kg/d 복용을 하면서 점진적인 체중의 감소 및 요단백의 감소로 관해의 소견을 보여 퇴원하였으며 외래 추적관찰중이다.